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2호 【루계 제2448호】

주체106(2017)년 8월 5일 토요일 음력 윤6월 14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주체106(2017)년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현지에 나오시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발사당일 밤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사명령을 내리시자 영웅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재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대지를 박차고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만리로 단숨에 솟구쳐올랐다.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 724. 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이번 시험발사는 최대사거리를 모의하여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하였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로케트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높이 평가하시고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립증되였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 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희떠운 전쟁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명분만 더해주고있다고 하시면서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로케트연구부문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여 7월 30일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연회참가자들은 주체적로케트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전략적핵무력강화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철퇴를 안긴 로케트개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리만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불뢰성을 또다시 터친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적로케트공업의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 영웅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웅변으로 실증한 세계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또 하나의 민족사적쾌승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를 경축하여 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도 미국놈들의 숨통을 더 바싹 조일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7.4혁명》을 안아온 그 기세, 그 정신으로 련속공격하여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국방과학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국방과학전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로케트개발집단의 위대한 스승, 친어버이가 되시여 걸음걸음 가르쳐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세계적인 대성공, 대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기동성과 타격력이 높은 새형의 탄도로케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을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기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본사기자

령장의 전선길에서 최후승리의 동이 터온다

얼마전 《로동신문》을 통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화선천리 불비속을 뚫고 조국의 남서부에 위치하고있는 광주에까지 나가시여 전시사업을 지도하신 력사적사실이 새롭게 전해져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미국의 불의의 무력침공을 짓부시고 인민군대가 련속 승리의 개가를 올리며 남으로 진격하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해방지구인 서울, 수안보에 나가시여 전선형편을 료해하시고 싸우는 군대와 인민을 고무해주시였다. 이에 그치지 않으시고 주석님께서는 광주에 있는 남해안방어부대에도 찾아가보실 생각을 무르익히시였다. 당시 전선은 락동강계선에 이르고있었고 광주는 적들이 몰켜있던 남동부의 대구보다도 썩 아래에 놓여있는 해방지역이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전선 최남단인 광주일대에는 아직도 반동들의 준동이 심하다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신변안전이 걱정된다고, 절대로 가시면 안된다고 그이의 최전선길을 거듭 만류해나섰다.

하지만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해 그 멀고 위험한 천리전선길에 또다시 나서시였다. 낮과 밤을 이어 야전승용차강행군을 하시면서 목적지인 전라남도 광주에 도착하신 주석님께서는 서남해안방어부대 지휘부를 돌아보시면서 당면한 군사작전문제와 관련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그날 광주천의 수려한 경치도 부감하시며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주석님께서는 수행원들에게 이런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하루빨리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를 제힘으로 반드시 일떠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험한 전선길을 걷고 또 걷고있습니다.

나의 전선길은 곧 승리의 길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불비쏟아지는 격전장들을 찾아 주석님 뚫고헤쳐가신 사생결단의 행로, 애국의 전선길이 있어 마침내 이 땅우에는 승리의 자랑스러운 7.27이 밝아왔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전라남도 광주에 최전선시찰의 숭고한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그날이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인 1950년 8월 11일이였다.

위대한 전승신화를 안아온 주석님의 전선길은 후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의 전선길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의 종말》을 부르짖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사면팔방에서 제재와 위협의 사슬을 조여오던 지난 세기 90년대, 나라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처럼 어려운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 더욱 높이 드시고 헤쳐가신 전선길의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그 길에는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도 있었고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보이는 위험천만한 판문점도 있었으며 한치 발밑엔 천길낭떠러지가 보이는 오성산의 아찔한 칼벼랑길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를 맞으시며 넘으시고 눈보라를 헤치시며 넘고넘어가신 철령의 아흔아홉굽이도 있었다.

쪽잠과 줴기밥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도 그 애국의 전선길에서 꽃펴난 일화이고 미끄러지는 야전승용차를 어깨로 미시면서 고지우의 전사들을 찾아가시고 전사들이 달구어놓은 온돌우에서 꽁꽁 언 발을 녹이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들도 그 나날들에 수놓아진 력사의 화폭들이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몸을 내대고 열어가신 그 한치한치의 전선길이 있어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싸움에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운명이 수호되고 공화국은 행성의 몇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공화국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병진의 기치높이 조국수호, 인민보위의 최전선길을 걷고계신다.

적진까지의 거리는 불과 350m, 적들의 총구가 육안으로 보이는 까칠봉초소에 몸소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터치고싶었지만 주고받는 말소리조차도 적초소에까지 들리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이여서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만 흘린 최전연병사들이다.

지금도 27㎜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수역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언제 어느 시각에 불꽃이 튀여 그것이 국부전이나 전면전으로 이어질지 예측할수 없는 초긴장상태의 최전연수역을 그이께서 찾으신 소식은 사람들을 놀래웠다.

당시 한 재미동포는 자기 글에서 이렇게 썼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한미합동군사연습개시를 불과 며칠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떠도는 적진 바로 앞에서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여러시간동안이나 항해하신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일이였다. 장재도와 무도는 웬만한 지도에는 나오지 않을만큼 아주 작은 섬이다. 너무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섬이고 더우기 적진의 포성이 수시로 들리는 위험지역이여서 1년내내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최전선 섬방어대에 자기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최고령도자께서 뜻밖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으니 그곳 군인들이 느낀 놀라움과 기쁨이 오죽 컸겠는가.》

이것은 오직 억척불변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배짱,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서시였다는 숭고한 사명감, 병사들에 대한 열화와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걸으실수 있는 최전선시찰의 길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모습은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싸우는 인민군용사들, 최전방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가시여 천리혜안의 예지와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그이의 이렇듯 희생적인 헌신과 령도아래 조국의 천리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의 가슴마다에는 무적필승의 용맹이 넘쳤고 공화국은 자위의 총검이 숲을 이룬 불패의 보루로 더욱 다져지게 되였다.

장장 70여년세월 우리 민족에게 핵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어이 완성하여 최후승리의 직선침로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전략적결심을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위적핵억제력완성의 최전선길에 결연히 나서시였다.

그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이 땅에서 나서자랄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가셔야만 했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회유기만과 위협공갈, 극악한 제재의 극한점을 이겨내야 하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사생결단의 전선길이였다.

그래서 새형의 첨단로케트개발을 위한 총설계가, 총제작자가 되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장소들과 아슬아슬한 조립현장, 포연자욱한 발사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기발한 과학적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무한한 힘과 용기도 안겨주시면서 대륙간탄도로케트완성의 험로역경을 한치한치 앞장에서 헤치시였다.

그이의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정력적인 령도는 마침내 7월의 대사변을 안아왔다.

7월 4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소식을 접한 온 나라의 일터와 초소, 마을과 가정들에서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이 된 5천년민족사의 대경사를 경축하였고 평양의 밤하늘가에는 아름다운 축포가 터져올랐다.

세계가 떠들썩했고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기절초풍하였다.

온 행성이 《화성—14》형 1호기에 의한 충격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악의 제국, 침략의 원흉의 정수리를 강타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7월 28일 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사명령을 내리시자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솟구쳐오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 724. 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 12초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하시였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의 핵우세와 핵패권에 당당히 맞서 최후파멸에로 몰아갈 실질적수단을 다 갖춘 명실상부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최대의 급박한 위협이다.》, 《이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들여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여도 조선의 핵타격을 막아낼수 없게 되였다.》는 패배자의 아우성이 련이어 울려나오고있다. 외신들은 미국이 애써 태연한척하면서 허세를 부리지만 당황망조해하는 눈치가 력력하다, 조미대결전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조선에서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발사는 미국에 대한 〈최후통첩〉, 미국에 울리는 경보신호》, 《미국이 고배를 마시는것은 시간문제》, 《미국은 북조선이 이미 〈마지막한계선〉까지 넘어선 조건에서 압박할만 한 지레대도 없는 상태》, 《트럼프는 란간에 발목이 묶인 만화영화의 희생양처럼 자승자박되여있는 상태》 등 세계도처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 대답은 조선은 승자이고 미국은 패자라는것이다.

오늘 온 세계가 목격하는 공화국의 반미대결전에서의 련이은 쾌승들은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전선길에서 이루어진 조선의 값진 승리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천만년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경애하는 원수님 사생결단으로 헤쳐가시는 애국의 전선길에서 바야흐로 조선민족 최후승리의 동이 터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7.27에 내리신 명령

《2차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28일 밤에 발사할것!
김 정 은
2017. 7. 27》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를 명령하신 그날은 온 나라가 전승의 환희를 떠올리며 명절을 즐겁게 보내던 날이였다. 전승의 7.27이 예순네번째로 다시 찾아온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의 힘을 최강으로 다지시며 반미대결전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한글자, 한글자에 새기시며 자신의 전략적결단과 의지를 담은 력사의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그 명령은 침략자 미국이 력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은 전승의 7.27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7.27로 이어가시려는 령장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세기를 이어오며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에 광분하는 제국주의미국에게 종국적파멸을 안기시려는 백두령장의 서리발같은 불호령이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힘차게 울려퍼진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시험발사의 뢰성은 온 세계를 또다시 들었다놓았으며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성—14》형의 2차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라고,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하시였다.

세계의 언론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조선이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어떤 수준에서 대처할수 있는가를 시위하였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앞으로의 위협은 완전히 절망적이다.》라고 평하였으며 미국내에서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고 백악관은 돌발적인 공포에 빠졌다. 조선은 위력한 강국이 되고 미국은 맥빠진 작은 나라가 되였다.》라고 조미대결에서의 패배를 인정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한다면 하시고 하면 반드시 이기시는 백승의 령장이시고 모든 기적과 승리의 상징이시다.

미국은 선군령장의 의지, 조선의 결심과 의지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력사적인 죄악을 똑바로 청산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고성호

숭고한 도덕의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렬사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따라 조국해방전쟁에서 미국을 타승하고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한 영용한 인민군렬사들을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진정한 애국자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건설하도록 하시여 그들의 생을 후세에 길이 빛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렬사묘를 새롭게 건설할것을 발기하시였으며 평양의 명당자리에 그 위치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나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완공단계에 이른 건설장을 찾으시여 렬사묘의 문주와 기념탑, 화환진정대며 묘비에 새길 글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세심히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영웅전사들의 공적과 삶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주시는 그이의 은정속에 인민군렬사들은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삶을 지니고 오늘도 후대들에게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여나가도록 고무추동하고있는것이다.

내리는 비를 맞으시며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는 그날의 원수님의 모습에는 뜨거운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고결한 풍모가 어려있었다.

그이를 모시여 인민군렬사들의 삶이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조국을 결사수호한 인민군렬사들을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금별로 빛내여주시는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다. 위대한 주석님께서 안아오신 7.27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의 승리를 안아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이의 령도밑에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를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로 삼고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다.

신기복

강국건설의 지름길

지금 온 세계는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을 두차례나 시험발사성공시키며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떠들어온 미국을 꼼짝 못하게 다스리며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전을 최후승리에로 이끌어가고있는데 대하여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이 빨라서 2~3년이 걸려야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들수 있다고 예상했던 미국도 국제적인 관례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도 빠른 시일안에 미국본토에 도달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가 개발된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극도의 공포감에 잠겨있다.

조선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찬란히 부상하게 된것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견지해온데 주요 비결의 하나가 있다.

2013년 3월에 제시된 이 새로운 전략로선은 적대세력의 가중되는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강국건설로선이다.

공화국은 이 로선에 따라 나라의 핵무력강화에 특별한 힘을 돌려왔다.

핵무기는 일반 재래식무기와는 대비조차 할수 없는 행성의 절대병기이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쥐고 휘두르면서 달려드는 미국에 맞서 자위의 핵무력을 질적으로, 량적으로 강화해나가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주권국가의 자위적인 권리행사이며 가장 옳바른 강국건설의 길이기도 하다.

이것을 신념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항구적인 전략로선으로 채택한 공화국에서는 지난 수년간에 핵무력완성에로 가기 위한 자위의 뢰성들이 련이어 울려퍼지였다.

첫 수소탄시험의 성공적인 뢰성이 행성을 뒤흔들고 핵탄공개를 비롯하여 핵병기화사업들이 적대세력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새 없게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련속 추진되였다.

지난 2월에는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도 성공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화국은 올해정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가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공표한데 이어 7월 4일과 28일에 련이어 두차례의 장쾌한 《화성—14》형의 뢰성을 터치였다.

이것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한 장쾌한 력사적사변이며 공화국의 특기할 대경사가 아닐수 없다. 이로써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다.

미국이 인정하건 말건, 적대세력들이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가리우건 말건 조선이 세계에 몇 안되는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이라는것은 너무도 엄연한 현실이다.

자주와 정의의 한길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면서 그토록 못살게 굴고 압살해보려고 갖은 위협과 제재책동에 매달려온 미국을 끝없는 공포에 잠그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의 아침을 지척에서 바라보고있는 공화국의 이 위대한 승리, 그것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심하여 채택하신 병진로선이 얼마나 정당하고 위대한 승리의 로선인가를 온 세상에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핵과 경제를 다같이 밀고나간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 《병진로선은 실패할것》이라고 갖은 험담을 늘어놓아온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지금 조선의 이 위력한 로선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있다.

미국은 예상 못했지만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드는것이 조선이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만을 새기여가는것이 또한 조선이라는것을 오늘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승리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나아갔기에 공화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세상이 인정하는 놀라운 전변의 력사를 수놓아왔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이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쏘면서도 북의 경제는 호황》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한것처럼 동방의 핵강국도 만들고 경제강국, 선진문명강국도 머지않은 현실로 만들어가고있는것이 위대한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라는 승리의 지름길을 따라 폭풍치고 비약하며 내달리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막을수 없으며 최후승리의 축포는 머지않아 이 땅우에서 터져오르게 될것이다.

백영호

가꾸어주는 손길이 없다면

지나온 인류정치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남녀불평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나 인민의 절절한 요구였고 녀성들의 인간적, 사회적처지개선을 위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여왔다. 유엔이 2030년 지속적개발목표들중의 하나로서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것만 보아도 녀성차별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사의 갈피를 보아도 무지와 몽매속에서 지지리도 학대받고 수모당하며 살아온것이 녀성들이였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녀자라고 하여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억눌리우는 삶을 살아야 한 조선녀성들이였다. 《3종지도》와 《7거지악》과 같은 낡은 봉건유습과 페풍, 게다가 일제식민지통치로 우리 녀성들은 2중, 3중의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 되여 말그대로 울밑에 서있는 봉선화의 처량한 모양으로 울고울어야 했다.

오늘날 조선녀성들이 어제날의 처량한 봉선화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에서 행복의 꽃으로 불리우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해가고있는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운명의 극적인 변화가 아니다.

조선녀성들을 불우한 처지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을 최상최대로 높여주시려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35(1946)년 7월 30일에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몸소 작성발포하시였다.

이것은 오직 녀성해방을 인간해방의 중요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주체적인 녀성해방강령이며 녀성운동의 투쟁강령이였다.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것을 명시한 력사적인 법령이 발포된 그날로부터 조선녀성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나라 녀성들은 새 조선의 주인으로 되여 공장과 농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건국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불비쏟아지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때에도, 전후복구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공화국력사의 년대기마다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며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새기여온 녀성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감나무중대의 녀성군인들에게 돌려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애국충정을 다하는 녀성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신 사실들은 오늘날 조선녀성들이 어떻게 되여 그리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을 빛내여가고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시고 빛내여주신 남녀평등권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더욱 참답게 보장되여 우리 녀성들의 자주적이며 행복한 삶은 최상의 경지에서 활짝 꽃펴나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차지하는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큰 의의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녀성운동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 녀성들에게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정, 믿음을 다 안겨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해마다 국제부녀절을 맞는 녀성들을 축하하여 황홀한 공연무대를 펼치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어버이사랑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옥류아동병원, 평양화장품공장과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들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어디 그뿐인가. 녀성들이 신게 될 신발의 무게까지 몸소 저울에 달아보시고 평양산원에 애기기저귀와 함께 애기용물소독종이까지 보내주도록 해주신 다심하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오늘 공화국의 녀성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참된 인생을 꽃피워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이 태여나고 첨단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과학자를 비롯한 녀성과학자들,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바쳐가고있는 녀성교육자들이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으며 녀성체육인들이 국제체육무대에서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고있다.

이런 조선녀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인들은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을 위해 최상급의 보건기지들을 세워주고있다. 녀성들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고있는 규모가 매우 크다. 녀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님께서 지니신 인간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하신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조선녀성들은 세상에 부러운것 없는 복받은 녀성들이다.》

꽃은 태양의 빛을 받아야 아름답게 피여날수 있다.

정녕 세기를 이어가며 안겨사는 따사로운 태양의 품이 있어 공화국의 녀성들은 가정과 생활의 꽃, 나라의 꽃으로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류현철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루어주시려고

8월 4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2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겨레에게 기어이 통일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이 력사의 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겨레가 높이 들고나갈 불멸의 기치를 마련해주시였다. 로작에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며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로작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만대에 길이 빛나게 되였고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이 땅우에 강성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드시여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조국통일3대헌장의 정식화, 그것은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그대로 관철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관철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였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의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민족과 통일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보고에서 조선로동당의 조국통일로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이라고 밝혀주시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였다. 뿐만아니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이 어린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는 내외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선군의 강력한 힘으로 짓부셔버리시며 조국통일위업의 최후승리에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러일으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밝은 래일을 그려보고있다.

천출명장의 탁월한 령도밑에 이룩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 그것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분렬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의 정수리를 강타한 장쾌한 불뢰성, 또 하나의 민족사적쾌승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고영식

자강의 신비한 힘

7월 4일과 28일에 련이어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시험발사 성공으로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알리자 적대세력들은 질겁하여 선제타격까지 운운하며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고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거나 급을 낮추라고 강요하는 《외교적징벌방안》까지 휘두르고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대조선외교압박전선에 합류하라고 기염을 토하고있다. 그런가하면 국경과 해상, 세계금융통로들에 촘촘한 제재봉쇄그물을 쳐놓고 조선과 거래하는 제3국기업을 제재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코트》로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고있다.

그러나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어떤 주저나 동요도 없이 오직 곧바로 나아가는 공화국에서는 증산의 동음소리, 혁신의 불바람, 창조와 건설의 노래소리 더 높이 울려가고있다.

제힘을 굳게 믿을 때 최후승리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이다.

공화국에 있어서 굴종은 곧 망국의 길이기에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고있다.

자강력이 있어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못해낼것도 없다는것이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단번성공으로 억척같이 새긴 진리이고 긍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칠데 대한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인민이 자강력을 더욱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강조하시였다.

공화국이 가는 정의의 길, 사회주의길을 가로막아보려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나날이 더해질수록 자강력을 더 억척같이 틀어쥐고 나가겠다는것이 바로 조선의 신념이고 배짱이다.

공화국이 지난해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더 높이 들자 반공화국적대세력은 《선군정치후위론》이니, 《경제발전우선론》이니 하고 입방아를 찧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며칠후 수소탄의 장쾌한 뢰성이 울려퍼지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솟았다.

새해벽두에 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일으킨 충격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소식은 당시 국제정치무대를 뒤흔들었었다.

조선이 진행한 첫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 위성발사에 대해 나름대로 펴는 주장과 견해들이 란무하는 속에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은 《수소탄시험과 〈광명성—4〉호발사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산물》이라고 평하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단순히 수소탄과 인공지구위성에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지난해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 만든 기계설비들이 그것을 잘 말해주었다.

새형의 80㏊뜨락또르, 115㏊디젤기관을 리용한 5t급 화물자동차, 새형의 뻐스 등 자기의 힘, 자체의 기술로 제작하고 계렬생산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놓은 이 성과는 자강력제일주의의 생활력을 잘 보여주고있다.

지난해 5월 어느날 기계설비전시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시장에 출품된 기계제품들은 자강력이 제일이며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준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인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이 있어 하늘에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리며 이 땅우에는 려명거리와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은것이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눈부신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공화국이다.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사랑하는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고 낮이나 밤이나 인민을 위한 헌신과 복무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강행군은 세기적인 기적과 번영을 안아오고있다.

자기의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소중한 애착,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공화국은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자기의 힘으로 실현하고있는것이다.

김순정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콤퓨터망을 리용한 과학농사열풍

최근 공화국에서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가 날을 따라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각 도, 시, 군 농업지도기관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의 90%에 해당한 수천개의 농장들에까지 콤퓨터망이 형성되여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연 수십만명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를 받았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가 활발히 전개됨으로써 전야마다에서는 과학농사열풍이 더욱 고조되고 나라의 농업생산이 힘있게 추동되고있다.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농업성과 과학연구기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장들을 콤퓨터망으로 련결하고 영농사업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시간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의대책하는 정보기술체계이다. 화상회의, 원격강의 및 문답봉사체계와 홈페지를 통한 기술자료봉사체계, 이동통신망에 기초한 질문접수 및 자료봉사체계로 구성된 이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는 선진과학기술이 물흐르듯 아래단위에 끊임없이 보급되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영농작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 협의대책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농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있다.

10일에 한번씩 운영되는 화상회의와 영농기술강의체계에서는 농작물생육예보자료통보와 함께 다음번 영농공정수행과정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강의, 중앙과 지방의 유능한 농업부문 과학자, 대학교원, 기술자들과의 질의응답, 현장에서 창조된 우수한 영농기술경험발표가 화상 및 동영상자료까지 안받침되여 실감있게 진행되고있다.

홈페지를 통한 기술자료봉사도 매일 진행되는데 여기서 가입자들은 농업성홈페지에 개설된 영농기술문답페지에 실린 물음과 대답기사들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자기 단위에서 류사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있다.

해당 단위에서 요청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종합적인 기술자료들이 신속정확히 제공되는 집중자료봉사와 새로운 영농기술에 대한 긴급강의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올해 수많은 농장들에서 높은 알곡증수를 담보하는 벼모판단계에서의 잎자르기를 신속히 도입할수 있은것도, 서해안바다가지역들에서 염피해를 극복하고 함경남도에서 질안비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들을 제때에 세울수 있은것도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의 덕이다.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에 대한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날을 따라 커갈수록 그것이 더 큰 은을 내게 하기 위한 농업성 해당 부문 일군들과 농업연구원 과학자들의 지혜와 열정도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은 머리를 식히고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심중히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성명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진행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지금 온 행성을 들었다놓으며 세계정치구도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대성공을 이룬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무진막강한 위력과 최상의 경지에 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만천하에 뚜렷이 과시되였으며 특히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이 여지없이 립증되였다.

문제는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대세를 옳게 판단하고 책임적인 선택을 하여야 할 미국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없이 설쳐대고있는것이다.

지어 미고위당국자들은 《군사적선택안》이요, 《비밀작전준비》요, 《정권교체》요 하면서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무모한 망발들까지 마구 줴쳐대고있다.

조선반도전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여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어리석고 우매하기 그지없는 만용을 부리는 미국에 평화를 사랑하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이름으로 이 행성을 울린 절세위인의 경종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미 지난 7월 4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이 국가핵무력완성의 최종관문을 통과한 특대사변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내외에 사실그대로 선포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이 우리를 보는 전략적시각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더이상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북선제공격》을 떠들어대다못해 감히 《참수작전》이니, 《초정밀표적타격》이니, 《전면적인 초강경제재압박》이니 하는 극악무도한 기도를 드러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바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이다.

미국은 우리의 최고령도자께서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을 똑바로 새겨들어야 한다.

아직도 미행정부와 의회의 고위인물들은 《북의 행동을 멈추게 할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느니, 《정권교체도 있을수 있는 선택》이라느니,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느니 하는 폭언들을 마구 줴쳐대며 우리의 급속한 핵무력고도화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라고 하신 우리 최고령도자의 유명한 말씀이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핵무력강화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이고 절대불변의 의지의 선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희떠운 전쟁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위협이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명분만 더해주게 될뿐이라는 우리 최고수뇌부의 선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꿈꾸고있는 《북핵폐기》야망이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라는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할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하신 천출위인의 추상같은 선언은 미국에 보내는 선군조선의 엄정한 중대경고이다.

이제 미국에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전략적지위를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서 전환하여 본토를 포함한 미국전체의 안전을 보장받겠는가 아니면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다가 전대미문의 핵참화속에 아메리카제국의 비참한 종말을 맞겠는가 하는 두 길외에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와 전쟁광기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심중히 새겨듣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2일
평 양

시론

승자와 패자의 정해진 운명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에 온 행성이 들끓고있다.

조미대결력사에 전승의 달로 기록된 뜻깊은 7월 미국에 또다시 통장훈을 부른 경이적인 사변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진보적인류는 지지와 경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공화국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발사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공화국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하였다.

이 경이적인 사변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기쁨의 환호성을 터치고있다. 반면에 《선물보따리》를 받은 미국은 무서운 불안과 공포에 전률하고있다. 급해맞은 미국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그 무슨 《세계적인 위협》으로 요란스레 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초강도제재결의》를 조작해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는 한편 무모한 군사적망동에도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갖 언어도단이고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공화국의 강력한 핵공격능력에 기절초풍한자들의 궁색한 넉두리, 비참한 최후파멸의 운명에서 어떻게 하나 벗어나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에 침략전쟁과 내전의 불을 질러놓고 주권국가의 령토에 미싸일들도 마구 퍼부어 무고한 민간인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고있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세계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명백히 조선민족의 주적인 미국을 겨누고 시험발사되였다. 미국본토를 핵불바다에 능히 잠그어버릴수 있는 조선의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가 미국에 위협이 되면 되였지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것이야말로 백로를 까마귀로 묘사하는것만치의 황당한 억지주장이다.

조선의 핵은 자위의 핵이고 폭제의 핵을 까부시는 정의의 드센 마치이다. 세계에 핵이 처음 출현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수천수만개의 핵무기들이 있지만 자주와 존엄의 기상이 어려있고 불의와 압제를 짓부시는 정의의 힘을 체현한 진짜 핵무장장비는 바로 조선이 보유한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이다. 그래서 침략과 살인을 밥먹듯하고 핵으로 세계를 영구히 지배하려고 하는 미국이 조선의 핵공격능력에 제일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있는것이다.

조선의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침략의 아성인 미국에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선량한 조선민족과 진보적인류에게는 평화와 행복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위력한 보검으로 되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조선과 미국은 마지막싸움을 하고있다. 그것은 조선전쟁이래 세기를 이어 계속되여온 세계에서도 가장 치렬한 대결이며 자주와 존엄, 국가생존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정의로운 조선과 침략의 핵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동방조선을 압살해보려고 갖은 범죄적책동을 다해온 악의 제국사이의 누가 누구를 하는 최후의 판가리대결전이다.

조선과 미국의 세기적싸움은 마지막 결승주로에 들어섰으며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있다.

주광일

《8월위기설》, 누가 불러오는가

최근 성공적으로 진행된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이후 남조선내부에서는 이른바 《8월위기설》이라는것이 떠돌고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저마끔 나서서 이번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이 미국이 그어놓은 금지선,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어섰으므로 미행정부의 군사적선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중미간의 대립과 모순이 첨예화되면서 8월하순에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계기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감이 최대로 고조될수 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당국도 《추가도발》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면서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싸드》를 배치한다, 미싸일지침을 개정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워대는 한편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끌어들일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7월 28일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고있는 미국에 공화국이 보내는 엄중경고이다. 공화국이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침략자, 도발자들의 명줄을 단번에 끊어버릴수 있는 전략적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앞에서 쨋쨋이 보여준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돌아칠것이 아니라 그 어느때보다 자중자숙해야 할 때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군사적대응》소동에 적극 편승하여 《싸드》의 조속한 배치니, 미전략자산전개니, 미싸일지침개정이니 하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얼간망둥이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결국 남조선내부에서 떠도는 《8월위기설》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무분별한 대결망동에 매달리며 스스로 불러오고있다는것이 명백해진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의 돌격대가 되여 무턱대고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길로 계속 나간다면 《8월위기설》이 진짜 눈앞의 현실로 펼쳐질수 있다는것이 지금 여론의 일치한 평가이다.

남조선당국이 파국적재앙이 빚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미국상전의 발뒤꿈치에 매달려 대결광기를 고취하며 경거망동할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옳바로 처신해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민

피할수 없는 굴종의 처지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집권때의 문건중에서 《싸드》배치내막이 들어있는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문제로 하여 지금 남조선민심은 또다시 분노와 격분으로 들끓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개를 거부한 《싸드》관련 문건들은 박근혜역도의 구속후에도 미국에 드나들며 《싸드》배치강행을 마지막까지 주도한 청와대 전 안보실장 김관진과 관련된것들이라고 한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최순실《국정》롱락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은 신속히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이른바 《김관진문건》만은 감추어보려는 남조선당국의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이 문건들이 공개되는 경우 미국이 강요한 《싸드》배치내막이 드러나 남조선 각계층의 《싸드》반대투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결국 미국의 눈밖에 나 곤욕만 치를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때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민심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배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고 《싸드》배치의 《재검토》를 떠들며 마치 큰일이라도 칠것처럼 놀아댄것도 바로 현 남조선당국이다.

하지만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계속되는 압력에 겁을 먹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집어던진채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7월 19일 집권기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적폐청산》을 떠들었지만 《싸드》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가 하면 28일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자마자 한밤중에 긴급《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소집하고 《싸드》발사대의 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발작적인 망동을 부리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자기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싸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전면도전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식민지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앞에 머리숙이고 상전이 바라는대로 할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위정자들의 피할수 없는 숙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싸드》배치가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대국들을 견제하고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목적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내외가 한결같이 공인하고있다.

남조선의 군사전문가들도 《북의 미싸일들을 〈싸드〉로 막는다는것은 황당한 노릇》이라고 비평하면서 남조선은 《미본토에 대한 타격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일뿐》이라고 까밝히고있다.

남조선집권자들이 지난 시기 《싸드》배치문제를 놓고 미국과 할 말은 할것처럼 놀아댄것이 결국은 남조선민심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불만을 눅잦혀보려는 서푼짜리 기만극이였다는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이상 남조선은 경제보복정도가 아니라 불벼락을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되였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싸드》배치를 강행하려는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분별한 반민족적망동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친미굴종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박근혜역적패당과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것은 뻔하다.

본사기자 김명성

서뿌른 결정, 혹심한 대가

지금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싸드》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한것으로 하여 심각한 대외적곤경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이 《싸드》발사대 추가배치를 결정하자 주변국은 대변인을 내세워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싸드〉배치는 지역의 전략적균형을 심각히 훼손하며 전략적안보리익을 침해한다.》, 《〈싸드〉배치를 반대하는 립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관련장비들을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였다. 이어 자국주재 남조선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싸드》배치중단과 장비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급해맞은 남조선당국은 주변국들의 달아오른 심기를 눅잦혀보려고 《싸드》발사대의 림시배치를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한번 최종적인 배치여부를 결정할것이라는것을 통보한다, 대표단을 주변국에 보낸다 어쩐다 하면서 객적게 놀아대고있다.

이를 두고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주변국들이 서로 긴밀히 손을 잡고 《미국, 일본, 남조선이 추구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제동을 걸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문재인〈정부〉의 서뿌른 〈싸드〉추가배치결정으로 국제적인 대북제재공조가 흐트러지게 되였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는 이미 미국행각때 《위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하면서 상전에게 《싸드》배치를 철석같이 맹약하고 주변국들에는 마치 《절차적정당성확보》의 명분밑에 시간을 끌다가 철회할것처럼 오그랑수를 써왔다. 남조선당국의 이번 《싸드》발사대 추가배치결정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변국들과의 관계문제보다 저들의 명줄을 틀어쥐고있는 미국에게 더 잘 보이지 않을수밖에 없는 식민지하수인의 친미굴종적체질의 발로이다.

지금 남조선은 물론 세계의 권위있는 군사전문가들은 론리적으로 볼 때 《싸드》추가배치결정은 남조선이 아니라 미국의 안전을 위한것이며 조선반도주변국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미국의 강박에 의한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싸드》배치가 남조선을 영원히 가로타고앉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목적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이번 《싸드》추가배치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극구 추어주면서 《싸드》의 조속한 배치를 닥달질해대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주변국들이 《싸드》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남조선에 배치되는것을 저들의 《전략적리익》을 침해하는 용납할수 없는 도전행위로 보고 강경립장을 취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강압에 떠밀려 서뿌른 결정을 내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아직도 미국만 쳐다보는 굴종의 화신들

남조선에서 박근혜적폐청산대상으로 락인된 보수야당들의 처지가 지리멸렬상태에 놓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가관은 제 몸도 부지하기 힘들어하는 이 패거리들이 주제넘게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푼수없는 고함을 쳐대고있는것이다.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에 세계가 경탄하고 미국에서 비명과 탄식이 련일 높아가고있는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패거리들이 저마끔 나서서 《도발》이요, 《규탄》이요 뭐요 하며 《강력한 응징》과 《북지휘부와 핵시험갱도의 초토화》를 떠들고있는것이 그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공화국의 전략적핵무력의 비약적인 발전에 완전히 넋을 잃고 혼비백산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미국의 핵전략자산전개》니, 《〈싸드〉추가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한미동맹강화》에 대해 목이 터져라 웨쳐대고있다.

보수야당패거리들의 이러한 추태는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저들의 지지세력을 긁어모으고 무너져가는 집기둥을 세워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며 미국상전에게 어떻게 하나 잘 보여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비렬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온 겨레가 일치하게 공인하듯이 공화국의 전략적핵무력강화조치는 력사적으로 가중되여온 미국의 침략적인 핵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고 전쟁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 민족만대의 안녕을 담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애국적장거이다.

남조선의 보수야당정객들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대는 《미국의 핵전략자산》이요, 《핵우산》이요, 《제재와 압박》이요 하는것들도 이제는 아무런 맥도 못추는 무용지물로 되여버렸다는것을 이번에 단행된 공화국의 2차에 걸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이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강화》라는 비루한 곡조나 목이 쉬게 불어대는 남조선의 위선적인 보수야당정객들이야말로 불쌍하고 가련하기 그지없다.

조미사이의 전략적대결구도가 완전히 달라진 오늘까지도 미국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생존을 지탱해보려고 버둥대는 보수야당떨거지들이야말로 초보적인 세상물정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민심이 보수야당들을 적폐청산대상으로 락인하고 단호히 배격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의 급변하는 대세를 바로 보지 못하고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며 동족대결놀음에 계속 매달리는 사대매국노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여론의 규탄과 비참한 종말밖에 없다.

본사기자 황금숙

싸움질속에 망해가는 보수정당

망하는 집안에서 울려나오는것은 싸움질소리뿐이다.

최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저마끔 《보수세력의 대표정당》으로 자처하면서 상대방을 물고뜯는 개싸움질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난파선에서 저들만 살겠다고 선장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친 사악한 무리들》, 《아무리 본처라고 우겨대도 첩은 첩일뿐》, 《살인범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끝까지 용서 안한다.》며 《바른정당》에 악담을 퍼붓고있다. 이에 맞서 《바른정당》은 《국회》에 《막말정치인추방결의안》을 제출하고 홍준표를 《폭력배》, 《빨갱이장사군》 등으로 비난하면서 《〈자유한국당〉의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쳐나와 〈바른정당〉이라는 구축함에 올라타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민심을 끌어당기기 위해 저저마다 이 지역에 떼를 지어 찾아가 《가짜보수, 낡은 보수를 대구에서 몰아내야 한다.》, 《보수정당의 중심인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자체내에서도 개싸움질이 그칠새 없이 벌어지고있다.

《자유한국당》내부에서는 박근혜탄핵과 함께 파멸에 처한 당의 《혁신》문제와 박근혜의 출당문제, 사무처직원축소문제,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문제 등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사이의 싸움이 그칠새 없이 벌어지고 여기에 일부 탈당움직임까지 나타나고있어 그야말로 풍지박산나기직전이다. 한편 《바른정당》안에서도 당의 《리념》문제를 놓고 대표와 반대파들이 서로 《반동》으로 몰아대는 등 알륵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정치적파멸의 위기에서 살구멍을 열어보겠다고 서로 《보수적통》을 자처하며 싸우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추태는 그야말로 며칠굶은 두마리의 개가 하나의 뼈다귀를 놓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그대로이다.

밖에 나가 싸우는것도 성차지 않아 내부에서까지 《당혁신》의 미명하에 자파세력확장에 피눈이 되여 날뛰며 서로 물고뜯는 두 보수정당족속들의 노는 꼴이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하기야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된다고 권력쟁탈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던자들이였으니 그 본성이야 어디 가겠는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같이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는 신주모시듯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서 부귀영화만을 누려오던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이러한 추물들이 서로가 보수의 《적자》로 자처하며 상대방을 물어메치려고 앙앙불락해하는 꼴이야말로 만사람들을 웃기는 풍자극이 아닐수 없다.

《박근혜잔여세력》, 《적폐세력》으로 배척을 받는 보수정당들이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겠다고 더이상 보기 추한 망신극만 늘어놓지 말고 하루빨리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라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김장호

《전쟁연습 중단하라》, 《평화협상 시작하라》

남조선 각계가 요구

지난달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서울에서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과 평화협상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한달후면 다시 대규모전쟁연습이 시작되고 군사적긴장이 높아질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것》을 당국에 요구해나섰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본부도 기자회견을 열고 《초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는 초불로 모인 국민의 힘을 믿고 미국이 제시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94개의 녀성단체들도 당국에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본사기자

일본과의 굴욕《합의》 진상을 밝혀낼것을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일 일본과의 굴욕적인 성노예문제《합의》의 진상을 옳바로 밝혀낼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청와대주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일본과의 외교부 국장급협의는 형식일뿐 최고권력기관 어디에선가 사전에 《합의》를 기정사실로 하였을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와대가 직접 주도하였다면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념두에 두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삼성그룹경영권을 불법적으로 넘긴 배후에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존재한것처럼 석연치 않은 과정뒤에는 반드시 음흉한 배후가 있기마련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압박과 비공식적《한》미외교선을 강하게 의심한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에 가장 리해관계가 큰 세력을 꼽으라면 그것은 미국정부였기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면서 《한》, 미, 일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안보정책을 세웠다.

그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한》일간의 성노예문제였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박근혜《정부》가 맡았다는것이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진실규명이 우선이다.

본사기자

덮어버릴수 없는 일본군성노예범죄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팀》이라는것을 내왔다.

외교부 장관직속으로 민간인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은 올해안으로 일본군성노예문제에 대한 《합의》과정과 내용전반을 조사검토하여 결과를 발표할것이라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협잡과 기만, 몇푼의 돈으로 반인륜적인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려는 일본당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박근혜역적무리들이 조작해낸 추악한 정치적흥정물이며 일대 사기극이다.

박근혜역도가 그 무슨 《국익》과 일본과의 《새로운 출발》을 뇌까리며 일본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를 무마시켜준것은 민족의 존엄을 깡그리 팔아먹은 친일굴욕의 극치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현 집권세력이 박근혜《정권》의 대일굴욕외교의 산물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당장 페기시키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비롯한 온갖 치떨리는 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두고 당국간 공식협정인지, 《합의》관련 협정문서가 존재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협상내용을 공개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그것은 2015년 당시 일본과 성노예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벌려놓은 박근혜《정권》이 《년내타결》이 어렵다던 자세에서 돌변하여 국제법률적요구와 절차에 따르는 공식문서도 남기지 않은채 전격적으로 《합의》를 발표하였기때문이다.

더우기 박근혜역도의 특대형범죄사건이 터진 후 일본과의 성노예문제《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등 중요한 외교안보문제들에 최순실을 비롯한 막후세력들이 관련되여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조사하는 《특별팀》을 내오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도 박근혜패당의 친일역적행위를 저주하고 더러운 음모를 담고있는 협상내용을 공개할것을 주장하는 광범한 각계층의 요구를 더는 외면할수 없기때문이다.

《특별팀》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겠는가는 앞으로 두고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추호도 용납될수 없으며 무조건 페기되여야 한다는것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지금 일본당국은 《특별팀》이 나온것과 관련하여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량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기존합의리행이 중요하다.》고 뇌까리면서 남조선당국에 압력을 가하고있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비굴한 대일굴종정책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간계에 놀아난다면 민족앞에 수치스러운 죄악만을 남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명수

초불민심과 다른 판결을 내린 부패법원

지난 7월 27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의 주범들에 대한 1심선고공판놀음을 벌려놓고 범죄자들에게 형량이 낮은 유죄판결을 내리였다고 한다.

사실상 이번 재판은 8 000여명의 진보적인 문화예술인들을 박해하고 탄압해온 보수패당의 범죄를 판결하는 재판이고 앞으로 박근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으로 하여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런데 남조선법원당국은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자체는 법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황당한 론거를 내세우면서 민심의 지향과는 전면배치되게 《대통령》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였던 조윤선을 비롯한 7명에게 1심판결에서 징역 3년, 1년 6개월 등의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각계층은 《법원결정은 초불민심을 우롱한것》, 《솜방망이처벌》,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국민과 거꾸로 가는 판결》,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듯하다.》고 하면서 격분을 표시하고있다.

그와 반면에 보수패거리들은 《좋은 소식의 신호탄》, 《희망이 보인다.》 등으로 반색하면서 《박〈대통령〉이 당장 구치소를 나서게 하라.》고 고아대고있다.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주범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린 남조선법원의 태도는 그대로 민주세력에게 악랄하게 도전해나선 범죄자들의 엄청난 죄악을 덜어주고 합리화해주는 반력사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와 법률전문가들은 앞으로 있게 될 박근혜역도에 대한 재판에서 악녀에게 중형을 가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기도밑에 법원이 이번에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주범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을 주었다고 하면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재판을 걷어치우고 공정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너무도 정당하고 옳은 주장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사건은 《유신》독재자의 파쑈적기질과 폭압수법을 유전자로 이어받은 박근혜가 보수세력들의 장기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파쑈독재와 폭압을 일삼으며 저지른 특대형범죄이다. 진보세력들에게 《종북》이라는 색갈모자를 씌워놓고 탄압을 일삼다 못해 진보의 싹을 완전히 매장해버리기 위해 《문화예술인요시찰명단》까지 만들고 탄압한것은 전대미문의 인권유린만행으로서 파쑈폭압의 극치이다.

이번에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벌같지 않은 처벌을 받은자들은 역도년의 수족이 되여 진보세력탄압에 누구보다 앞장선자들이다.

남조선법원이 이러한 특대형범죄자들에게 가벼운 형량을 적용하고 지어 집행유예의 명목밑에 족쇄까지 풀어준것은 범죄의 주모자인 박근혜역도의 죄를 덜어주겠다는것을 로골적으로 시사한것으로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현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중형을 들씌우고 파쑈독재만을 일삼으며 반민주적, 반인권적죄악을 저지른 악한들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남조선법원이야말로 적폐청산대상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박근혜역도를 탄핵시킨 초불투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드높은 기개를 만천하에 시위하였다.

남조선법원은 《초불을 다시 들기 전에 옳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중이 직접 사법개혁에 나서겠다.》는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놀음을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시 닭살돋아 못 보겠네

김 윤 식

정말이지 닭살돋아 못 보겠구나
천하의 못된짓만 골라서 하던
늙다리 암닭 박근혜년이
민심의 심판 피해 버둥대는 꼴은

《대통령》벙거지 변두처럼 올려놓고
온 남녘을 생지옥으로 만든 죄악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렸나
발가락이 갑자기 아프다누나

재판정에서 씨물씨물 웃기도 하고
입이 째져라 하품도 하며
책상우에 코박고 자빠도 지고
금시 먹은 밥 또 달라는 꼬락서니 보며

세상사람들모두 어리둥절, 혀를 차누나
아직도 제 죄를 모를가? 모르는척 할가?
체면도 가죽속에 있다는데
벼룩이도 제 낯짝건사는 한다는데…

머리칼이 삐쭉 곤두선다
저따위 추물이 지금껏 사람모양을 하고
《정의》와 《인권》을 꼬꼬댁거렸다니
《북정권교체》까지 감히 짖어댔다니

어이 모르랴 한줌도 안되는 보수떨거지들
《동정》여론 불러일으켜
재판을 지연시키고 극형을 면해보려는
《닭대가리》의 그 간교한 술책을

허나 똑똑히 알라 살길은 어디에도 없다
더러운 잔명 부지해보려 버드럭댈수록
세상의 조소, 민심의 격분은 더 세차지거니
사무친 증오와 분노담아 세상은 웨친다

—죄는 감추려 할수록 더 커만지는 법
이년아, 곱게 앉아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닭장같은 그 철창속이 바로
네가 묻혀야 할 정해진 무덤이야!

《대통령》일정을 감춘 리유

오물은 들출수록 악취가 나는 법이다.

최근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피고석에 앉은 박근혜역적무리들에게서 범죄의 구린내가 계속 물씬물씬 풍겨나와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박근혜패당이 《국정》롱단사건과 《세월》호참사 등과 관련문건들을 폐기한 사실이다.

원래 남조선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에 집권시기의 업무자료들을 《공개기록물》, 《비공개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그런데 온갖 범죄투성이로 일관된 과거의 행적을 감추어보려고 박근혜패당은 주요한 기록물들을 넘기지 않고 무더기로 폐기해버렸다.

박근혜패당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1 106만여건이다. 그러나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각종 회의기록, 정책과 인사결정을 담은 핵심자료는 12만 6 000여건으로서 고작 1%밖에 안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한 자료들중 절반에 달하는 498만건이 청와대직원들의 구내식당리용자료, 청소도구관리자료들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북데기자료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자료들까지 저희들것처럼 포장하여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건수를 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대통령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패당은 《대통령》일정과 관련한 기록은 하나도 넘기지 않았다고 한다.

리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한 기록이 그대로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되면 박근혜패당이 그리도 숨기고싶어하는 《세월》호참사 7시간행적은 물론 청와대와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내막 등 온갖 범죄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날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결국 의도적인 소각이고 범죄의 진실이 알려지는것을 모면해보기 위한 비렬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박근혜의 지령에 따른 또 하나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 박근혜패당이 집권기간 저지른 특급범죄, 만고의 죄악들은 절대로 흑막속에 덮어버릴수 없다.

원한에 숨진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것을 용납치 않으며 한갖 선무당에게 《국정》을 마음대로 롱락당하고 짓밟힌 남조선의 민심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박근혜패당이 집권기간 《국정》롱단사건과 《세월》호참사 등과 관련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무더기로 폐기한 사실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들고일어나고있다.

지은 죄에 눌리워 숨도 크게 쉴수 없게 된 비참한 처지에 빠져가지고서도 살아보겠다고 마지막순간까지 발버둥질인 박근혜패당이 이제 갈길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악녀의 추한 몰골, 어디가랴

최근 남조선에서 초불민심의 규탄속에 탄핵당한 박근혜가 재판정에서 추한 몰골을 계속 드러내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각계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6월에 진행된 재판들에서 쩍하면 하품을 하고 잠을 자는가 하면 느닷없이 키득거리다가 코를 책상에 처박고 쓰러지는 등 정신분렬증세를 보이던 박근혜가 7월에 들어와 발가락부상을 구실로 3차례나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구치소측의 확인과 그에 따른 재판출두요구에 할수 없이 14일부터 다시 재판정에 출두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싼 다루를 신고 일부러 다리를 절룩거리는 등 흉물스럽게 놀아댔다.

지난 7월 25일에는 재판도중 규정을 어기고 고용변호인의 손전화기를 훔쳐보다가 적발되여 《체신머리없는 추물》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하였다.

특히 7월 28일 재판이 끝난 이후에는 발등까지 염증이 퍼져 더이상 견딜수 없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기신기신 병원에 찾아갔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들것에 실려 이동하는 몰골이 언론에 공개되여 개망신까지 당하였다.

이것이 한때 《대통령》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며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제 고뿔만큼도 여기지 않던 청와대마녀의 진짜 추한 모습이다.

체면도 가죽속에 있다고 스스로 사약을 먹고 없어져도 시원치 않을 천하악귀가 수치도 모르고 살아보겠다고 서푼짜리 요술을 피워대는 꼴에 세상사람모두가 침을 뱉고있다.

박근혜의 이러한 추태는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극형을 면해보려는 간교한 술책이며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의 흉심을 꿰뚫어본지 오래다.

박근혜가 아무리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도 역스러운 몰골만 더욱 드러낼뿐이다.

지금 남조선민심은 산같은 죄악을 짓고도 자그마한 반성이나 가책은커녕 동정을 사보려고 눈뜨고 못 봐줄 추태를 부려대는 박근혜를 당장 최고의 극형에 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그러니 박근혜는 얄팍하고 비렬한 술수로 민심을 기만하려 할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력사의 심판을 받는것이 마땅하다.

특급범죄자인 박근혜가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버드럭거릴수록 세상의 조소와 민심의 격분만을 자아낼뿐이며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은 그 어디에도 없다.

본사기자 황 진 옥

만평

언론의 본분을 되찾기 위한 의로운 투쟁

최근 남조선언론계에서 박근혜패당이 남겨놓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전국언론로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련합, 참여련대를 비롯한 200여개의 각계층 단체들로 구성된 《〈KBS〉, 〈MBC〉정상화시민행동》이 매주 금요일마다 《KBS》와 《MBC》방송본사앞에서 벌리는 언론정상화투쟁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 투쟁들에서 참가자들은 《초불혁명을 거스르는 반동적인 인사들이 〈KBS〉, 〈MBC〉는 물론 〈련합뉴스〉, 〈서울신문〉 등 공영언론을 점령하고있다.》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박근혜가 임명한 언론부역자들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을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드릴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이 이처럼 언론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것은 남조선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초불민심에 역행하여 보수패당의 적폐를 은폐하고 현실을 오도하는 보수언론의 외곡보도가 지금도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패당의 부정추문행위를 증명하는 문건들이 대규모적으로 발견된 사실에 대해 《KBS》와 《MBC》 등 박근혜잔당들이 장악하고있는 언론사들이 침묵을 지키고있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더우기 보수언론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시험발사성공과 같은 동족의 자위적인 전략적조치들을 악랄하게 헐뜯고 반공화국대결여론고취에 미쳐날뛰면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방해하고있다.

오늘날 북남관계가 최악의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박근혜보수패당의 극악한 대결정책과 함께 이에 적극 추종하여온 어용보수언론들의 악질적인 대결여론조작책동이 지속되고있는것도 적지 않게 관련되여있다.

《KBS》, 《MBC》를 비롯한 주요방송사들이 초불민심에 도전하고 동족대결에 광분하고있는것은 바로 박근혜보수패당이 언론을 극도로 보수화, 반동화하였기때문이다. 박근혜패당은 집권기간 여러 언론사의 수장자리에 악질동족대결분자들을 앉혀놓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언론의 본분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량심적인 기자들을 해고하면서 언론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였다. 한편으로는 보수언론사들에 《정부》의 광고비를 몰아주어 저들의 대결정책을 미화하고 사회전반에 대결여론을 퍼뜨리는데 앞장서도록 부추겼다.

바로 이러한 박근혜잔당들이 여전히 언론기관들을 장악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에서 언론의 생명인 공정성과 객관성은 찾아볼수 없고 허위와 날조, 모략보도가 공공연히 판을 치고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는 민심에 도전하여 친미굴종과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극우보수잔당의 부활을 기도하는 어용매문가들을 말끔히 청산하고 정의와 진리를 대변하는 공정한 언론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김 원 식

남 조 선 에 서

계속되는 당국의 언론탄압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였다고 하지만 진보적언론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계속되고있어 사회적분노를 자아내고있다.

1일 대구경북지역 경찰서소속 보안수사대가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파쑈경찰은 그가 제주지역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넣어주는 등 련락을 주고받았다는것을 문제시하고있다.

이에 대해 폭로하면서 《자주시보》는 폐간된 《자주민보》관련자들이 아직까지도 《보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현 당국도 공안탄압을 계속하고있다는것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인터네트에서 합법적으로 류통되는 자료를 보내준것이 무슨 죄인가고 신문은 반문하였다.

현 《정부》가 초불의 힘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공안당국은 《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본사기자

파멸은 《자유한국당》의 면할수 없는 운명이다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민중의 저주와 배격의 웨침이 날로 거세지고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에서 《〈자유한국당〉해체를 바라는 시민들》이라는 단체에 의하여 시작된 이 투쟁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있으며 보수패당의 《터밭》으로 불리우던 대구, 령남지역에서도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단체들이 결성되여 《적폐정당》, 《쓰레기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에 궐기해나서고있다.

《자유한국당》해체는 박근혜와 모의작당하여 소름끼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에도 반성과 사죄는 고사하고 악녀와 함께 쉬쓸어놓은 모든 적폐들을 되살려보려고 발버둥치는 수구꼴통당에 대한 민심의 단호한 선고이다.

조상을 그대로 닮은 《자유한국당》

보수가 정의와 진보에 밀려 시대의 기슭밖으로 쫓겨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자주와 인권우선의 21세기에 사대와 굴종, 전쟁과 대결, 폭압과 악정, 인권유린과 말살을 《국정》으로 휘둘러온 남조선의 극우보수무리는 민심의 지탄을 받아 쇠고랑을 찬 박근혜의 처참한 운명과 함께 제명을 다하게 되였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지리멸렬의 처지에 빠진 박근혜적폐세력들이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벙거지를 쓰고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으로 아스팔트짬의 잡초같이 발악적으로 머리를 쳐들었지만 악녀의 운명과 달리 될수는 없다.

《자유한국당》의 비참한 래일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본성으로 하여 이미 예고되여있다.

《자유한국당》의 족보를 캐여보면 원조상인 《자유당》으로부터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미국에 의해 미국식으로 배양되고 길들여진 철저한 친미사대매국집단이였다.

그 가운데는 미국의 지휘봉에 따라 조선침략전쟁도발에 앞장선 호전광도 있었고 군사《주권》을 미국에 통채로 넘겨준 쓸개빠진자도 있으며 백년숙적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재침의 문을 열어준 극악한 매국노도 있다.

불법의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가로채고 민주화를 바라는 인민봉기를 땅크를 내몰아 류혈진압하였으며 온 겨레가 애써 마련한 6.15통일시대의 결과물들을 무지막지하게 도륙하며 《흡수통일》을 위한 동족대결소동에 미쳐날뛴 자들도 많았다.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 권력을 쥐고있던 어느때를 막론하고 남조선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파쑈폭압의 칼부림을 당하지 않은적이 없었으며 친일,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이 살판치는 속에 평화와 통일은 빛을 아예 잃었다.

진수렁에 싸그쟁이 뭉쳐들듯 인간의 본성인 자주를 거부하고 대중의 보편적권리인 민주주의를 테로하며 민족의 소원인 단합과 통일을 탄압해온 친미, 친일사대와 파쑈독재, 동족대결의 원흉들과 족속들이 게바라들고 얽혀진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인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승》, 《고수》한다는 보수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비롯한 미국식가치관이며 당마크도 미국의 《자유의 녀신상》의 《홰불》을 모방한것이니 독초의 뿌리에서 독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격언 그른데 없다.

《자유한국당》이 삐여져나오게 된 계기도 조상들을 그대로 닮았다.

남조선정치사에서 최대의 《국정》롱단사건인 박근혜—최순실사건의 부역자, 공범자집단이였던 《새누리당》간판으로는 민심의 분노를 피할수 없고 권력을 유지할수 없다고 타산한 시정배들이 글자를 몇개 바꾼 《자유한국당》간판을 내걸었던것이다.

그 수법은 굴욕적인 쌀시장개방, 전두환, 로태우의 비밀자금사건 등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게 된 《민자당》이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었고 15대《대선》에서 《차떼기당》, 《돈벌레당》으로 락인찍혀 몰락전야에 처하자《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것이였다.

결국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민중억압과 략탈의 권력과 부귀를 위해 합당과 분당, 부정과 날치기 등 끊임없는 변신을 해온 사대매국노, 권력추물들이 써내려가는 수구꼴통생존사의 연장이며 패륜패악으로 얼룩진 보수의 족보에 한자리를 더 채운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죽은 시신에 화장한다고 다시 살아날수 없다.》, 《당명교체가 아니라 해체와 소멸로 가야 한다.》고 절규하고있는것이다.

없어져버려야 할 낡아빠진 극우보수의 《적자》들이 모여들어 시대를 착각한 보수의 《전통과 가치》를 고수하고 이어간다는 《자유한국당》은 애당초 생겨나지부터 말았어야 할 무리임이 분명하다.

쓸어버려야 할 적폐무리

《자유한국당》이 파멸의 벼랑끝으로 쫓겨나게 된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지은 대죄악으로 인한 필연적운명이다.

남조선민심은 《자유한국당》을 박근혜적폐청산의 《1호대상》으로 지명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우매하기 그지없고 선무당에게 놀아나는 천치를 《준비된 녀성〈대통령〉》으로 분장시켜 남조선에 《국정》롱단의 패악을 몰아온 주범이며 악녀의 독선, 독단, 독주에 북을 치고 장단을 맞추어온 환관, 공범자무리이다.

박근혜탄핵의 초불이 타오르자 《〈정권〉찬탈을 위한 반란세력》으로 매도하며 《시가전이 벌어지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것》이라느니, 《시민수만명이 내전으로 사망할것》이라고 줴치면서 보수쿠데타를 선동해나선것도 다름아닌 이자들이다.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거짓이 가라앉으니 진실이 떠오른다.》고 하면서 박근혜구속과 《세월》호인양을 남조선각계가 환영할 때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물러난 〈대통령〉과 련결하려 하지 말라.》, 《더이상 특정집단의 정치적리용은 허용할수 없다.》고 줴치며 박근혜의 《변호인》, 《호위무사》노릇을 자처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완전히 변한 시대와 민심을 읽지 못하고 역도년에 대한 재판과 선고를 실황중계하는것에 대해서도 《21세기형 인민재판》, 《보복정치》, 《야당시절의 분풀이》라고 독기를 뿜어대고있다.

척결되여야 할 《자유한국당》의 죄악은 박근혜의 최대적폐인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범죄를 앞장에서 비호하며 그것을 유지, 연장, 보강하기 위해 극악스레 날뛰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자유한국당》대표 홍준표라는자는 지난 《대선》기간 역도년이 내들었던 《굳건한 한미동맹유지》, 《포괄적안보태세구축》, 《대북상호주의페기》, 《반체제전복세력척결》 등을 《안보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미국이 퍼뜨린 《4월전쟁위기설》로 선거판을 《북풍》몰이로 어지럽히며 《보수우파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느니, 《강력한 〈안보대통령〉이 되여 북을 제압하겠다.》고 왜가리청을 고아댔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청문회》들에서 침방울을 튕겨가며 《주적론》과 《한미동맹》을 《검증자대》로 휘둘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친미사대, 동족대결책동은 비약적으로 솟구치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을 두고도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다.

겨레의 운명과 미래를 수호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련이은 성공을 두고 《혈맹인 미국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줴치면서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과 제재》에 몰두해야 한다는 악담을 떠벌이고 미국상전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동맹》강화, 핵전력자산투입을 구걸한것이 다름아닌 《자유한국당》매국노들이다.

친미사대에 명줄을 걸고 동족대결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으며 악녀의 이름을 팔아 보수떨거지들을 결집시켜 독재부활을 망상하고있는 친미보수의 집결처 《자유한국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저주, 민족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민심의 철추로 심판하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사회와 강토를 어지럽히는 《쓰레기정당》으로 락인하고 그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경제와 민생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의 부역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은 사회의 암적존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당》,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초불민심이 바라는 개혁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민심의 철추로 심판하자》는것이 남조선 각계 민심의 우렁찬 목소리이다.

《자유한국당》해체투쟁에는 초등학생, 대학생, 가정주부, 직장인, 예술인, 교수들을 비롯하여 각계층이 떨쳐나서고있으며 초불집회, 자유발언, 예술공연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투쟁이 전개되고있다.

《자유한국당해체! 5행시》발표모임은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지난 6월 19일 《자유한국당》은 저들이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5행시로 《응원해달라.》는 희떠운 나발을 불어댔다고 한다.

악녀와 함께 청산되여야 할 적폐대상이 또다시 권력야심을 꿈틀거리며 일어서겠다는 철면피한 수작에 남조선인민들은 풍자, 조소, 분노의 5행시로 대답하였으며 불과 3일만에 4 000여개의 5행시가 인터네트에 올라 사람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대표적인 5행시들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시절 독선정치
《유신》시절 독재정치
《한나라당》시절 독기정치
국민 고달픈 정치
당장 끝장내야 한다

《자유당》의 리승만
《유신정권》의 박정희
《한나라당》의 리명박근혜
《국가》를 망친
당대 최고의 쓰레기들

《자유한국당》놈들아
유치원에 가서 배워라
한마디만 더하면 뒈진다
국민에게 뒈진다
당장 해체하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너무도 사무쳤기에 보수패당이 저들의 《아성》이라던 대구, 경상도지역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보수흉내 그만내라!》, 《〈자유한국당〉때문에 내 고향 경상도가 쪽팔린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자유한국당〉 행복한 장례식》이 벌어지고있는 형편이다.

지난 7월 7일 저녁, 《자유한국당》의 대구시당, 경상북도당 건물앞에 검은색 제단이 차려지고 제단우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영정이, 제단량옆에는 《적폐중의 적폐》, 《이런 날 올줄 알았다.》라는 글이 나붙었다.

《적폐청산 대구시민대회》가 치르는 《〈자유한국당〉 행복한 장례식》이였던것이다.

인터네트와 손전화를 통한 《문자폭탄공격》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수 있게 하였다.

《자유한국당》패들이 7월 3일 전당대회를 광고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개설한 인터네트홈페지에 매일 수천여개의 비난글이 쏟아지는 바람에 홈페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치하고 망신스러운 〈자유한국당〉》, 《남조선에서 유일무이한 쓰레기당》,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거짓말정당》, 《국정을 말아먹는 발목잡기당》, 《종북공세 없으면 존재 못하는 불필요한 당》, 《당장 해체되여야 할 친일적폐정당》, 《깡통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글들이 인터네트와 《자유한국당》의원들의 손전화에 수백, 수천건씩 오르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자유한국당》해체투쟁은 박근혜를 탄핵시키던 초불투쟁시기때와 같은 형식과 방법으로 이어지고 악녀를 거꾸러뜨리던 용용한 기세가 적폐정당, 《쓰레기정당》을 파멸시키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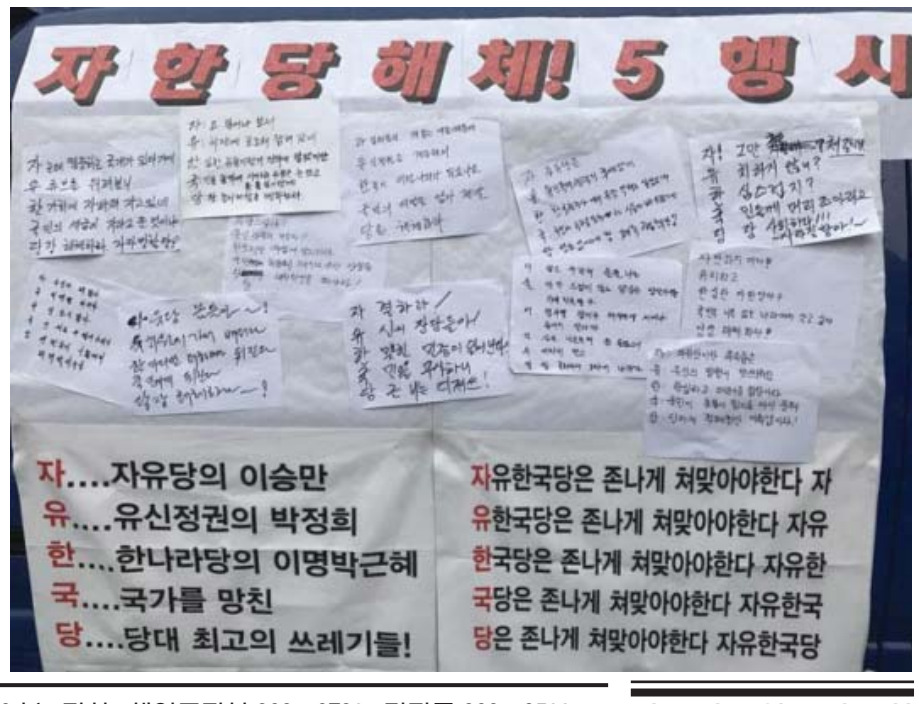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죽기마련이고 쌓은 죄악이 클수록 받는 벌도 용서가 없다고 하였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갖은 악폐만 들씌워온 수구꼴통의 무리, 외세의 옷자락에 묻어 기생하는 사대매국집단, 《유신》악녀를 비호두둔하며 죄악만을 덧쌓고있는 《자유한국당》은 사대와 매국, 폭압으로 권력을 지탱하다가 제 갈길을 간 박근혜의 뒤를 따라 비참한 파멸의 벼랑끝으로 질주하고있다.

민중의 발길에 채워 력사의 수렁에 처박히게 된 《자유한국당》종말은 시간문제이다.

희세의 악녀를 거꾸러뜨린 거대한 초불의 바다는 시대의 오물, 진보의 장애물인 《자유한국당》을 무자비하게 태워버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